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18. 12. 1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伊, 클럽內 '최루액 분사' 의심 사고로 100여명 사상
  - 12.8 伊 현지언론은 동부 코리날도 지역의 한 클럽에서 최루액 의심물질이 갑자기 분사돼 클럽 內 손님들이 출구 쪽으로 몰려 6명 압사,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
    - \* 현지경찰은 테러가능성 등 사고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
- 佛, 스트라스부르 크리스마스시장 총격으로 16명 사상
  - 12.11 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 중심부의 크리스마스시장 인근에서 총격테러로 사망 3명 · 중경상 13명의 사상자 발생, 용의자 「셰리프 세카트」는 범행 후 도주, 13일 밤 총격 끝에 사살
    - \* 「세카트」는 獨서 절도혐의로 복역 후 지난해 佛로 추방, 이후 스트라스부르 지방정부가 그를 테러 감시목록인 'S파일'에 잠재적 극단주의자로 등록·관리

#### 미주

- 美, CNN 겨냥한 '폭발물 테러' 소동으로 생방송 중 대피
  - 12.7 美 언론은 6일(현지시간) 밤에 CNN 뉴욕지국이 있는 타임 워너센터 빌딩에 “5개의 폭탄이 숨겨져 있다”는 협박전화가 걸려와 생방송 도중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
    - \* 현지경찰은 현장출입을 차단하고 약 90분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未발견

## ○ 美, 페이스북 사옥에 폭탄테러 협박신고

- 12.12 美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위치한 페이스북 사옥에 “폭탄을 설치했다”는 협박신고가 접수,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인스타그램 본사 직원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
  - \* 美 멘로파크 경찰당국은 위 사옥들이 위치한 제퍼슨 드라이브지역을 전면 폐쇄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폭탄은 未발견

## 중 동

## ○ ISIS, 리비아인 인질 6명 살해

- 12.10 리비아에 파견된 UN 대표단은 ISIS가 지난 10.28 리비아 북부 해안도시 시르테의 알푸카하 지역 공격 당시에 인질로 잡아갔던 시리아인 6명을 최근 살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발표
  - \* 시르테는 ISIS가 작년말 패퇴하기 이전 활발히 활동하였던 거점지역

## 아 · 태평양

## ○ 탈레반, 아프간 정부 軍기지 공격해 14명 사망 · 21명 납치

- 12.7 아프간에서 탈레반 反軍 200여명이 서부 헤라트州의 軍기지 두 곳을 공격, 정부군 14명이 사망하고 21명이 피랍되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발표
  - \* 탈레반은 아프간內 34개州 대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, 영토의 40%에서 정부군과 최소한 대등한 수준의 전투력으로 대치 中

## ○ ISIS 추종 필리핀 반군에 피랍된 印尼선원 탈출

- 12.7 IS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 ‘아부사야프’에 피랍됐던 印尼 선원 「우스만 유노스(30세, 남)」\*가 필리핀 남부 술루州 홀로섬 루욱지역에서 주민들에게 발견돼 정부군에 인계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
  - \* 9.11 말레이 동부 셴포르나市 앞바다에서 어선정박 중 피랍, 아부사야프는 석방조건으로 400만 링깃(약 10억7,000만원)을 몸값으로 요구

터키, 이스탄불 연쇄 폭탄테러

- '16.12.10 터키 이스탄불 축구팀의 홈경기장인 '보다폰 아레나' 외곽과 인근 '마즈카 공원'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48명 사망\* · 166명 부상
  - \* 경찰관 38명, 민간인 8명, 테러범 2명
- 경기장 외곽에 있던 경찰 버스를 목표로 한 차량 폭탄 공격에 이어 45초 후 공원에 모여 있던 경찰관들을 목표로 자살폭탄테러 자행
  - \* 경기 종료 2시간 이후에 공격이 발생하여 축구팬 피해자 없음
- '16.12.11 쿠르드노동자당(PKK)\*의 분파인 쿠르드자유매파(TAK)는 웹사이트를 통해 “축구장 폭탄테러는 터키 남동부에서 정부군의 공격과 PKK지도자 「압둘라 와잘란」 수감에 대한 보복”이라고 선언
  - \*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테러단체

< 쿠르드족 분리운동 >

- (쿠르드족) ‘중동의 집시’라 불리며 국가 없이 중동 산악지대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나, 고유 문화·언어·사회구조를 유지한 3,500만명 규모의 단일 민족
  - \* 주요 거주지 : 터키(1,000만명), 이란(500만명), 이라크(300만명), 시리아(200만명)
- (배경)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면서 쿠르드족의 독립을 보장하는 세브르 조약(1920년) 체결, 3년 뒤 터키의 반발로 조약은 파기되고, 임의적인 영토설정으로 주변국으로 흩어져 흡수
- (최근동향)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(PKK), 시리아의 인민수비대(YPG), 이라크의 페슈메르가(Peshmerga) 등의 분리운동 무장단체가 각각 활동하고 있으며, 이라크 전쟁 · ISIS 격퇴전 등 최근 지역내 혼란을 틈타 이라크·시리아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였으나, 터키를 중심으로 분리운동에 대한 공격 강화추세